

白溪 李基仁의 「蜜山追憶記」 연구

한길로*

- I. 서론
 - II. 밀산행의 배경과 러시아령 진입까지의 과정
 - III. 한흥동 운영의 실정과 현지 한인사회의 기류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독립운동사 뿐만 아니라 한인 이주사에도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공간인 ‘밀산 한흥동’에 주목하며, 한계 이승희의 차남 李基仁(1894~1981)이 남긴 「蜜山追憶記」를 분석하는 논고이다. 이 책은 부친을 만나기 위해 1910년 7월(음력) 부산을 출발하여 해삼위를 거쳐 밀산부에 도착, 1913년 경영상의 문제로 그곳을 떠날 때까지를 기록한 일종의 회고록(회상기)이다. 이 자료는 먼저 국내에서 韓興洞까지의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당시 한국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해삼위와 북만주 밀산까지 당도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는지를 비교적 상세히 담고 있다. 동시에 연해주 일대 지도자와 각 단체 사이의 현실인식에 관한 ‘온도차’나 대립의 일면 또한 생생히

* 길림대학교 강사 / philosmind@naver.com

기술하고 있다. 요컨대, 그의 회고는 이미 공개된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이 미처 조명하지 못했던 지점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고 당시 상황을 실감나게 기술하고 있어 그 때의 실정을 예측하게 만든다. 더불어 한문글쓰기를 통해 당대 상황과 분위기의 안팎을 생생히 기술하고 있어 『한계유고』를 포함한 한흥동 관련 기록과 기록 사이의 공백을 메워내고 있다. 즉 국내외를 오가며 묵묵히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독립운동가 2세들의 인고와 고초 가득했던 삶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요긴한 자료라 할 수 있다.

◆ 주제어

이기인, 「밀산추억기」, 한흥동, 이승희, 『한계유고』

I. 서론

일제의 겁박과 위협, 그리고 이에 동조했던 인사들의 ‘협잡’으로 이른바 을사조약(1905)이 체결되었다. 이를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지식인들은 미증유의 통한과 참담함을 안은 채 대한제국의 망국과 종사의 멸절을 목전에 두게 된다. 이에 이들은 직접 의병을 이끌어 항일전투를 지휘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 앞에 놓인 혼란에 대한 책임을 다해 보았지만 악화일로와 같은 상황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 “나라가 자립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보호하에 돌아간다면, 종사가 망하는데 그치지 않고 종족 또한 멸망”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주요 지식인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었던 것이다.¹⁾

비근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거대한 국난 앞에, 수많은 지식인들은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의병투쟁이나 연명상소와 같은 방법으로는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민족의 지배를 벗어난 국경 밖의 공간을 상상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한 곳은 상당수의 이주민이 정착해 있던 연해주 일대였다.²⁾ 이들 가운데 한인공동체 구축에 가장 주도적인 인사는 이승희와 이상설이었다.³⁾ 이 둘은 한인들

-
- 1) 참고로 위 인용문은 “궁극적으로 항일 투쟁의 도화선”이 된 민영익의 자살을 들은 이상설의 거리 연설 가운데 일부이다. (이성현, 「민영환의 ‘순국’ 담론에 대한 고찰」, 『강원사학』26, 강원사학회, 2004, 126쪽)
 - 2)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2008, 570쪽. 참고로 당시 崔在亨(1858~1920)·李範允(1856~1940) 등이 머물고 있었던 이곳에 安重根(1879~1910)·李相萬(1870~1917) 등이 속속 합류하는 등 국내의 지식인들의 동참도 확대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소위 유림이라 불리는 인물들이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大韓十三道義軍都總裁 毅庵 柳麟錫(1842~1915)과 함께 韓溪 李承熙(1847~1916)를 거론할 수 있다.
 - 3) 이런 배경에서 한흥동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이 시기 이승희와 이상설의 활동과 역할 등에 집중되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기승, 「한계 이승희의 독립운동과 대동사회 건설 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5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의 현지 정착과 국난극복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 수립을 목표로 여러 곳을 물색한 끝에, 1909년 길림성 밀산부 봉밀산 주변을 택하여 “韓興洞”이라 명명한 개척촌을 수립했다.⁴⁾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운동기지’의 출현이었다. 이상설이 토지 매입과 운영 자본을 담당했다면, 이승희는 그곳에 직접 거주하며 실무를 책임지면서 이주민과 망명객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⁵⁾ 이곳에서 이들은 지독한 기근과 가난을 피해, 또 오랑캐와 같았던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 지역의 땅에 머물던 이산자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던 것이다.⁶⁾

본고는 독립운동사 뿐만 아니라 한인 이주사에서도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공간인 ‘한흥동’에 주목하며, 기존 논의들을 보충하고 간략히

2007, 39~80쪽, 박민영, 「국치 전후 李相高의 연해주지역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2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357~392쪽; 「漣齋 李相高의 독립운동론과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6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35~78쪽, 서동일, 「1910년대 한중 유림의 교류와 공교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7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143~193쪽, 유준기, 「독립운동기지 한흥동 건설과 독립운동가의 망명 경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4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5~26쪽, 윤병석, 「이상설 선생의 생애와 독립 운동」, 『나라사랑』20, 외솔회, 1975, 25~70쪽)

- 4) 현재 韓興洞은 黑龍江省 鶴西市(地級) 密山市(縣級) 白漁灣鎮 관내의 蜂蜜山 일대다. 흑룡강성 남부에 위치한 이곳은 약 4,400km²의 호수(중국어 이름 興凱湖, 러시아에서는 한카호(Ханка湖)라 칭한다)를 경계로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다. 이승희는 1909년 이상설의 위탁을 받고 해삼위에서 이곳을 둘러 본 뒤, 토지 약 2,250畝를 사들였고 중국과 러시아 일대에 흩어진 한인들을 모아 100여 호를 이주시켰는데 이것이 한흥동의 시초였다. 1910년에는, 안창호의 北美 국민회가 파견한 金聖武가 인근 十里洼에 960헥타르의 토지를 사들였으며 이어 이상설의 추천으로 한민회 회장 金學萬이 南百泡子에 384헥타르의 토지를 사들였다. 또한 1913년에 이상설과 이승희의 주선으로 밀산무관학교를 수립함으로써 이 일대는 조선독립운동의 제 1기지가 되었고 밀산현은 한국 사람들의 집거지로 거듭났다. (김광택(주판), 『밀산조선족백년사』, 밀산조선족백년사편찬위, 흑룡강성조선민족출판사, 2007, 5~8쪽)

- 5) 유준기, 앞의 논문, 13쪽.

- 6) 당시 연해주 일대에는 45,048명(1910년 기준)의 한인이, 또 다른 주요 이거지였던 중국 동북 지역을 아우르는 서간도 일대에는 135,963명(1914년 기준)의 한인이 머물고 있었다. (양정훈, 「해의 독립운동 거점지역과 고려인 학교 연계 연구」, 『한국보훈논총』18-2, 한국보훈학회, 2019, 72쪽; 김태국, 「신흥무관학교와 서간도 한인사회의 지원과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4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1, 42쪽)

언급된 부분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승희의 차남 李基仁(1894~1981)⁷⁾이 남긴 「蜜山追憶記」을 분석하는데 주력한다.⁸⁾ 이 기록은 밀산으로 건너간 부친을 만나기 위해 1910년 7월(음력) 부산을 출발하여 해삼위를 거쳐 밀산부에 도착한 뒤, 1913년 경영상의 문제로 그곳을 떠날 때까지를 기록한 일종의 회고록(회상기)이다.

이 자료는 먼저 국내에서 한흥동까지의 도착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당시 한국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해삼위와 북만주 밀산에 당도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는지를 매우 상세히 담고 있는 자료이다. 동시에 연해주 일대 지도자들과 단체 사이의 현실인식에 관한 ‘온도차’나 대립의 일면 또한 비교적 소상하고 생생히 기

7) 이기인의 생애를 1985년 이기원이 작성한 묘갈명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은 고종 갑오 8년(1894) 정월 24일, 성주 대포의 世第에서 태어나셨다. 기유(1909, 단 실제 그가 떠난 시기는 이듬해인 경술(1910)년이다)년 대계 이승희 공께서 해삼위에 계실 때 공이 홀로 배종하였는데 나이는 겨우 열여섯이었다. 먼저 대계공은 也忍 金學萬(?~?)과 溥齊 李相高(1870~1917)과 더불어 遠東農業會社를 창립하여 독립운동 기지로 삼았고 또한 田土를 개간하여 길림성 밀산부 아래에 한흥학교를 열었는데 공은 실무에 종사했다. (...중략...) 기미(1919)년 심산 김창숙과 더불어 거창에 있는 먼우 관중석을 알현하여 유럽단이 파리에 장서를 보낼 것을 논의하였다. 경신(1920)년에는 다시 봉천으로 돌아와 禹應奎와 함께 서탑에 東萊商會를 열어 상해 임시정부와의 연락을 관장했으며 석주 이상룡이 공을 초치하여 항일군정부 經略員으로 삼았다. 신유(1921)년에 自山 申伯雨와 함께 경성에 勞動共濟會를 창립했고 계해(1923)년에는 북경 대한독립의용단 특과원이 되었는데 李虎密 찬모금으로 상주에서 피체되어 6개월간 구류를 당하셨다. 을축(1925)년에는 儒城에서 은밀히 심산과 모여 모금의 방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李家源, 「白溪李公墓碣銘」, 『白溪文集』, 白溪文集刊行所, 1986, 244~245쪽, “公以高宗甲午(1894)正月二十四日, 生于星之大浦世第. 己酉(1909)大溪公在海蔘威, 公獨往陪從, 年財十六. 先是大溪公與也忍金學萬·溥齊李相高, 勸遠東農業會社, 爲獨立運動基地, 又開墾田土, 設韓興學校於吉林省蜂密山下, 公從事實務. (...中略...) 己未(1919)與心山, 謁倪宇郭鍾錫於居昌, 議送儒林團巴里長書, 庚申(1920)復至奉天, 與禹應奎勸東萊商會於西塔, 管掌上海臨時政府聯絡, 石洲李相龍招公, 爲抗日軍政府經略員. 辛酉(1921)與自山申伯雨, 勸勞動共濟會於我京, 癸亥(1923)爲北京大韓獨立義勇團特派員, 李虎密贊募金, 被逮於尙州, 拘留六個月. 乙丑(1925)密會心山於儒城, 議募金方略.”) 참고로 그 역시 이승희와 장형 이기원과 더불어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1990)을 수여 받았다.

8) 본 작품은 1986년 발간된 『白溪文集』(白溪文集刊行所, 195~199쪽)에 수록되어 있다.

술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특히 기존에 잘 언급되지 않았던 이역에 머물던 독립운동가 2세의 삶과 내면을 살펴보기에도 요긴하다. 즉 이 텍스트는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면서 당시 한인 사회의 현실을 보다 다채롭게 조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밀산행의 배경과 러시아령 진입까지의 과정

부친 이승희는 1908년 4월 20일(음력) 부산에서 출발, 5월 9일 해삼위에 도착했다.⁹⁾ 그곳에서 이상설과 안중근·유인석 등을 만난 그는 1909년 겨울 마침내 吉林省 蜜山府 蜂蜜山 興凱湖 주변으로 이주하고 그곳을 ‘한흥동’이라 명명한다. 이로부터 이곳과 인근에는 민족지사 뿐만 아니라 빈민들의 이주도 늘어 1911년에는 1년 사이에 17,753명의 한인들이 새로 이주하게 된다.¹⁰⁾ 이 사이 1909년 장남 三洲 李基元(1855~1982)¹¹⁾이 7월 밀산으로 그를 찾아왔다. 이후 유인석을 만나기 위해 함께 떠난 해삼위에 때마침 전염병인 콜레라가 창궐하면서 이승희는 장손이었던 그를 한 달 만에 서둘러 돌려보낸다.¹²⁾ 그렇게 이기원은 고국으로 혼자 돌아오게 되는데 이승희의 차남 이기인의 밀산행은 이러한 배

9) 그가 고국을 떠났을 때 그의 곁에는 동료 勉篤 李德厚(1855~1927)·문인 鄭寅夏(?~?)·종친 枕山 李洙仁(1880~1962)이 함께 했다.(『韓溪遺稿』卷7「年譜」, 548쪽, “四月二十日, 發浮海行。(注)……遂渡海, 勉篤李公及門人鄭寅夏·李洙仁陪從.” 이하「연보」인용 시 권 사항은 생략)

10) 박민영(외), 『기록으로 보는 재외한인의 역사: 이주와 정착 그리고 발전의 시간들 아시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2016, 66쪽.

11) 이승희의 장손으로 자는 子乾, 호는 三洲, 저서로는 『三洲集』이 있다. 부친의 명에 따라 각종 편찬을 주도하였고 1919년 파리장서에 서명했다. 이후 만세운동을 주도한 일로 체포되었다. 1925년 김창숙과 독립군자금 20만원 모금운동에 동참하였고 12월 동양척식회사 폭탄사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저항운동을 이어갔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12) 「연보」, 549쪽. “七月, 長子基元來觀, 八月初, 先生發延秋行。(注)到港數日, 先生屢命基元歸家, 猶不敢告退, 逡巡度日, 忽有虎烈刺(瘧疾)猖獗……先生嚴促基元發歸.”

경에서 성립되었다. 즉 형을 대신하여 아버지 이승희를 지근거리에서 보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 「밀산추억기」의 서두를 살펴보자.¹³⁾

단기 4242년 경술(1910) 7월, 아버지를 뵈고자 문중 어른인 枕山 李子裕¹⁴⁾와 함께 떠났다. 왜관에 모여 기차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하여 이틀 동안 머물며 기다리니 상선이 도착했다. 바다 위 하늘이 광활하여 심신이 시원히 뚫리는 것 같았지만 배가 깊은 바다에 이르자 흔들림과 요동이 격심하여 흡사 나무 끝에서 바람에 흐트러지는 낙엽 같았으니 누워있는 자는 일어나고 일어났던 자는 누워 자리에 구토를 쏟아냈다. 나 또한 수차례 토하였으나 다른 사람에 비해 경미하여 실신까지 이르지는 않았는데 옆자리의 신부가 별안간 와서 안아 버리니 나는 더욱 한바탕

- 13) 「밀산추억기」에 따르면 7월에 출발한 그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경지에서의 우발 상황, 새롭게 배를 주선하여 대기하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해삼위 도착까지 대략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비된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부친 이승희는 20일 정도에 도착했다. (유준기, 앞의 논문, 10쪽 참조) 참고로 아래의 표는 이승희와 이기인 형제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 일대를 둘러보고 이승희를 만난 지우 장석영의 이동경로이다. 단 해삼위에서 밀산까지 이승희 삼부자의 경로는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요좌기행』 관련 기록은 정우락의 논문(『遼左紀行』을 통해 본 張錫英의 만주체험과 그 의의), 『한국학논집』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7, 292쪽)을 참조했다.

이름	기간	경로 (※해삼위에서 밀산은 모두 육로)	출처
李承熙	1908.04~05	(해로) 倭館 - 釜山 - 元山 - 清津 - 海參崴	『寒溪遺稿』 卷7, 「年譜」
李基元	1909.04~07	(해로) 倭館 - 釜山 - 元山 - 清津 - 海參崴 - 宋皇嶺(현 우수리스크) - 密山	『韓溪遺稿』 卷7, 「年譜」
李基仁	1910.07~10	(해로+육로) 倭館 - 釜山 - 利原 - 咸興 - 元山 - 清津 - 慶興 雄基港 - 豆滿江邊 - (淸國) 惠峴- (러시아)延秋港 - 海參崴 - 開拓里(밀산까지 700리) - 宋皇嶺 - 江原 - 興凱湖 - 密山	「蜜山追憶記」
張錫英	1912.01~03	(육로) 倭館 - 龍山 - 松京 - 平壤 - 新義州 - (중국)安東 - 奉天 - 長春 - 哈爾濱 - 江原 - 上新峙 - 密山	『遼左紀行』

- 14) 즉 李洙仁(1880~1962)을 말한다. 성주출생으로 자는 子裕 호는 枕山이며 문집 「枕山隨錄」이 전한다. 성산이씨 문중으로 어릴 적 이승희에게 수학하였고 1908년 이승희와 함께 해삼위로 건너갔다가 이승희의 명에 따라 고국에 돌아왔다. 1919년 과리장서에 연명했고 3.1 운동으로 대구감옥에 6개월간 수감했으며 이후 학문에 전념했다. 이런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김승룡, 「枕山 李洙仁의 삶과 시세계에 대하여」, 『영남학』7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50~52쪽)

웃을 만 했다.¹⁵⁾

그의 회고록 서두는 암울한 상황과 곧 다가올 간난에 대한 우려를 뒤로한 채, 형을 대신하여 외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선 10대 청년의 기대와 설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성주를 벗어나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거대한 상선에 오른 그의 눈에 비친 너른 바다의 풍경과 끝을 알 수 없는 푸른 하늘의 모습은 그의 심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요동치는 배안에서 연신 멀미와 구토를 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품에 안기고만 신부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당시 그의 상황과 그의 기분을 짐작하게 만들면서 후일에 다가올 반전을 예감하게 한다. 그러다, 1910년 8월 한국이 일본에 병탄되면서 그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만다. 함경도 利原을 지나 함흥에 당도했을 때의 일이었다.

풍문에 일진회 이용구가 무리를 이끌어 정부에 겁박 청원하여 일본에 우리나라가 합병 당해 國統이 영원히 끊어졌다고 하니 원통하고 분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일로 외국출입이 두절되었다고 했다. 다음날 원산항에 도착하여 어제 들었던 것을 탐문하였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되어 고개를 숙이며 탄식했다. 침산 어른께서 ‘해삼위에 사는 崔鳳後(러시아 이름 베지개)가 있는데 汽船으로 한우를 사다가 러시아 식당에 제공하여 정기적으로 왕래를 한다니 곧 청진에 도착하면 다시 금 출국의 계획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네.’라고 하셨다. 곧장 배를 타고 회령 청진에 도착하여 16일을 기다리며 최봉후의 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끝내는 최의 배 또한 함방으로 인해 금지되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¹⁶⁾

위의 인용문은 당시는 부친이 떠난 2년 전의 상황과 매우 달라졌음을

15) 「蜜山追憶記」, 195쪽, “檀紀四千二百四十二年庚戌(1910)七月, 發觀親行, 與枕山族丈子裕氏, 會倭館乘汽車, 至釜山港, 留二日待商船得來. 海天廣闊, 心神爽豁, 船到深溟, 簸動激甚, 似木末風葉, 卧者起, 起者卧, 嘔吐濺席. 余亦吐之數次, 而比人稍輕, 不至失神, 隣席新婦猝來抱, 我尤可一笑也.”

16) 「蜜山追憶記」, 195~196쪽, “風聞一進會長李容九率衆, 迫請於政府, 合併我國於日本, 國統永絕云, 痛憤欲死, 而因此杜絕外國出入云. 翌至元山港, 探問果如昨聞, 悶不能前進, 垂頭歎息. 枕山丈云, 海蔘威居人崔鳳後露各베지개, 以汽船貿韓牛, 供露厨, 故定期往來, 則可到清津再圖出國之計矣. 即乘船至會寧清津, 留待十六日望崔船, 而竟知崔船亦為合邦之禁不來也.

보여준다. 즉 강제병합 이후 한국인에 대한 각 항구의 통제가 전에 비해 더욱 엄격해졌음을 의미하는데 국외 이주를 막기 위한 일경의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이는 막힌 바닷길이 아닌 ‘육로’를 이용하는 한국인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졌음을 반영하면서 이미 정착한 한인들의 사적인 도움에 의존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들 역시 걸어서 해삼위에 가야할 것을 직감하고는 러시아를 왕래하는 상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이들은 곧장 다른 짐을 모두 본가에 보내고 이승희에게 전달할 의복을 짚어 매고 청진에서 배를 탔다.¹⁷⁾

한편 그의 회고를 보면 한반도 북단에서 청나라의 국경으로 들어갈 때,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면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에서 청국이 병력을 집중시켜 이주해 오는 한인들을 모두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중국의 내부에 들어온 이들은 한인 숙소를 찾아 하루를 묵는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풍성한 식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옥수수 다섯 자루 · 배춧국 한 사발 · 탁주 한 그릇”으로 주린 배를 해결해야 했다.¹⁸⁾ 이윽고 그들은 惠峴이란 곳에서 원산항에서 알게 된 牛商을 3일간 기다리게 된다. 그를 통해 중국을 넘어 러시아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윽고 긴 기다림 끝에 그들은 러시아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다음날 惠峴에 도착, 한인 점포에서 牛商을 3일간 기다렸다. 처음에는 粟米밥을 먹었는데 모래마냥 흩어져 목구멍만 자극할 뿐이라 장까지 충분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사과나 소금 절인 생선을 파는지 물어 이로써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

-
- 17) 그들은 이후 한반도 최북단의 항구 함북 경흥(慶興) 웅기항(雄基港)에 도착한 뒤 도보 이동을 시작하여 두만강 변을 지나 높은 재를 넘어 60리를 걸었는데, 17세의 사대부집 자제가 걷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각연(脚軟)과 발바닥이 물집이 돋거나 파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견족(繭足)’과 싸우며 계속 걸어야 했으며 회고했다. (「蜜山追憶記」, 196쪽, “不得已念徒步出國計, 將行囊做一包, 郵付本家, 背負家親所需衣服, 而乘船至慶興雄基港, 此是我韓最北端港也. 下船一宿, 步行至豆滿江邊, 宿於村家, 踰高嶺行六十里, 故脚軟繭足, 行動甚艱.”)
- 18) 같은 책, 같은 쪽, “探日警不察之暇, 暮登津船渡之, 卽清國界也. 訪韓人家一宿, 始供玉蜀五柄白菜湯一碗濁酒一器, 意謂待客.”

다. 야반에 우상이 비로소 도착하여 화급히 등에 짐을 메고 올라왔는데 소의 등에는 안장이 없어 미끄러질 듯 움직이다 확 꺾여 떨어질 것 같더니 필경에는 손으로 잡고 있던 망간까지 놓치고 말았다. 가까스로 삼 십 여리를 가 마침내 새벽이 되니 이내 러시아령 延秋港¹⁹⁾이었다.”²⁰⁾

일정의 감시를 따돌리고 중국의 국경을 지나 가까스로 러시아 연추까지 도착한 그의 회상은 당시의 상황을 매우 잘 보여준다. 강제병합 이후 일본의 출입국 단속이 매우 엄격해지면서 이들은 해로가 아닌 육로를 선택했고, 한인들이 운영하는 숙소에 머물며 현지를 오가는 상인의 관계망을 활용하여 러시아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육로의 경우, 대다수는 두만강변이나 훈춘을 넘어 연해주 포시에트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미 정착한 한인들은 많은 섯길을 통해 들어왔다고 한다.²¹⁾ 중국과 유사하게 러시아 쪽 국경초소나 국경수비대 역시 위낙 소수이기에 이주하는 다수의 한인을 모두 통제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를 찾아 두 번의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그는 일본의 감시를 뚫어야 했고 긴 행로에서 오는 여독과 배고픔에 직면해야 했다. 우상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의 일정은 원산에서 종료되고 다시 성주로 돌아가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만나야만 했던 부친이었다. 그를 위해 준비한 의복을 등에 맨 어린 청년은 함께 온 문중 어른의 기지와 국경 지대의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러시아 국경을 넘는데 성공했다. 이제 그

19) 연추는 당시 안치해, 노보키예프스크로 불렸으며 현재지명은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다. 러시아 연해주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고 두만강 인접 도시이다. 러시아·북한·중국 등 3개국의 접경지대로 많은 한인들이 거주했으며 곧 남부 연해주 최대의 한인지역이 되었다. 안중근 의병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한인마을이 사라져 정확한 위치는 불명이다. (반병률, 「러시아 연해주 한인마을 연추의 형성과 초기 모습」, 『동북아역사논총』25, 동북아역사재단, 2009, 40쪽)

20) 『蜜山追憶記』196쪽, “翌至惠峴, 韓人店待牛商三日, 初食粟米飯, 沙散刺喉, 無法充腸. 問買萍果·鯁魚, 以免飢. 夜半牛商始到, 急急背負行李而跨, 牛背無鞍而滑動撓欲墜, 竟失手持網巾, 艱辛行三十餘里, 始曙乃露領延秋港也.”

21) 이상근, 「한인 노령 이주사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24~25쪽.

들은 부친과 한인들이 함께 머물고 있던 러시아령 한카호 너머의 북만주 밀산으로 가야했다.

Ⅲ. 한흥동 운영의 실정과 현지 한인사회의 기류

어렵게 러시아령 연추에 도착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세관의 검사였다. 일경의 눈을 피해 한국의 국경을 넘고 또 야음을 틈타 중국을 지나 러시아에 국경에 도착했지만 러시아 세관의 눈은 피할 수 없었고 이내 구류를 당한다. 본래 두 국경을 지날 때에는 반드시 오늘날의 여권과 같은 “關照”가 있어야만 했는데²²⁾ 아무 준비 없이 도착한 그들은 다시 한 번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만다. 특히 1905년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에는 인종주의적 입장이 강하게 표출되었고 지주층의 입장도 크게 옹호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척의 기운이 일고 있었다. 게다가 1905년 러시아 연혹룡총독으로 임명된 운테르베르게르(Unterberger, П. Ф. Унтербергер, 1842~1921)는 인종주의적 태도를 피력하며 한인들의 노령 거주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다.²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저 처분만을 기다리게 된다. 당시의 회고를 직접 살펴보자.

세관의 순경이 나의 행장 속을 뒤져보니 인삼 두 봉과 烟火 두 갑이 있어 나를 밀산과 같이 여겨 붙잡아 감방에 넣고는 가버렸다. 네다섯 시간을 기다려도 판결이 없었는데 방은 창이 없어 어둡고 껌껌하여 마치 칠후 같은 밤 같았다. 침산 어른이 초조히 “비록 우리가 러시아 말은 못해도 금지품을 지니고 있어 죄가 될 것 같으니 필히 복역해야 할 것 같구나. 어찌 절로 사경을 찾아 여기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나 또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액운을 만났는지 알 수 없어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오후 가까울 무렵 문이 열려 감방에서

22) 『韓溪遺稿』7, 「年譜」, 549쪽, “兩國境如犬牙相支, 出入國必經關照”

23) 이상일, 「한인 노령이주와 제정러시아의 대한인 정책」, 『태동고전연구』1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7, 24쪽.

나오니, 다시 나의 행장을 검사하는데 그 복장과 장식을 보고 경찰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알았다. 지팡이로 인삼과 연화 등의 물건을 가리키고는 질책하더니 나를 잡던 자가 풀어주어 빠르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왔으니 마치 새장을 탈출하는 새와 같았다.²⁴⁾

구체적인 출입국 관리 규정에 대한 지식 없이 그저 이승회를 찾아 떠나는 그들에게 이러한 구류는 일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용문은 조력해줄 통역도 없는 상태에서 어두운 감방에 갇힌 두 사람의 불안과 참담한 심정이 잘 표현하고 있다.²⁵⁾ 유치장을 벗어나는 순간을 새장을 탈출하는 새로 묘사하는 장면은, 사경까지 생각할 만큼 극도의 불안을 벗어난 어린 청년의 안도와 기쁨을 매우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이곳을 벗어난 그는 먼저 한인 숙소를 찾았고 소를 타고 오는 길에 놓치고 말았던 망건을 하나 산 뒤 증기선에 올라 해삼위로 도착했다.

해삼위에 도착한 그는 이국적인 풍경에 다소 압도되었지만 이내 발해의 고도였음을 떠올렸고 동시에 문명의 개발과 진보 그리고 과학이 인류에 미치는 공을 직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開拓里²⁶⁾를 거쳐 700여리 떨어진 밀산을 향해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에서 부친의

24) 「蜜山追憶記」, 196쪽, 稅關巡警, 檢我裝裡, 有人蔘二封烟火二匣, 同為密商, 拘囚監房而去, 待四五時無判決, 房無窓, 黑黯如漆夜. 枕山丈焦燥曰: “雖不解俄語, 似持禁品為罪, 服役必矣. 何料自尋死境至此乎!” 余亦不知緣何遭此厄, 嚙嚙垂頭. 近午頃, 開門出房, 再檢我裝, 見其服章, 知為警長, 以杖指人蔘烟火等物而詰責, 拘我者放我, 出去快豁, 如鳥脫籠.

25) 인삼은 현금화를 위한 물품으로, 연화는 담배에 불을 붙이는 도구로 추정된다. 이 두 물품 가운데 인삼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소량이었기에 만나질 만에 유치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당국은 밀상을 비교적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26)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초기 한인 마을이다. 러시아는 1893년 이 지역 내에 고려인 거주 지역을 지정했는데 한인들은 그 마을을 개척리(러시아로는 한인촌에 해당하는 ‘카레이스카야 슬라보드카’)라고 불렀다. 1907년경에는 개척리를 포함한 8개의 집단거류지가 형성되었는데 인구는 약 10,850명이었다고 전한다. 이는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는 러시아 인구의 약 1/8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이상해, 「옛 소련 지역의 고려인 주거」, 『국제학술대회논문집』, 한국주거학회, 2005, 144쪽)

밀산부 사업에 대해 듣게 된다. 그곳은 바로 ‘집 없이 떠도는 한인들을 餽接하고 애국정신을 고무·감발코자 학교를 세워 청소년을 기르며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복국의 근거지’였던 것이다.²⁷⁾

그들은 개척리에서 5일을 기다린 끝에 주인의 소개로 얻은 차를 타고 宋皇嶺²⁸⁾에 도착했다. 러시아인의 마차를 고용하여 시골집에 머문 그는 낯선 러시아 시골 풍경과 주거시설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숙소에는 온돌도 이불도 없었는데 대개 연통 결 건초 속에 둘러 눕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풀가루가 머리에 가득했다. 조식으로 밥이 없고 다만 검정 麵包와 甘薯湯 數種을 먹는 것이 흡사 돼지 목장 같았으니 그 야만스러운 풍속을 알 수 있었다.”라며 척박한 러시아 농촌에서의 하룻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²⁹⁾ 이후 江原을 지나 흥개호를 넘어 이승희가 머물고 있는 한흥동에 도착한 이기인은 잦은 고초를 인내한 끝에 이역만리에서 약 3년 만에 부친을 친견할 수 있었다.

“다음날 江原에 도착하여 묵었다. 앞에 있는 興凱湖 주위는 천여 리가 되는데 청나라와 러시아의 분점으로 경계가 되었고 어업은 비교적 번성해 보였다. 오십리

27) 「蜜山追憶記」, 196~197쪽. 卽訪韓人家一宿, 求買破綱而着之. 乘俄汽船, 至海蔘威, 是昔我渤海火氏之東京, 而現為露國極東名港也. 施設宏壯, 畧窺西歐之制度, 風物比我東優越, 頗有進步, 開發之態, 始驚科學之有功於人類如此也. 尋開拓里金致補家投宿, 探知家君駐在吉林省蜜山府, 距此尚遙七百餘里也. 枕山丈邇我訪也忍金學萬·溥齋李相高, 諸丈多家勸勉之語, 始覺家君與此丈等, 創設韓人勸業會, 買荒地二十六方於蜜山府, 奠接韓人之流離無家者, 而鼓發愛國精神, 設校教育青少年, 而訓練軍事, 以資異日復國之根柢地也.

28) 송황령은 지금의 우스리스크 일대로 이곳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행 철도의 연결지이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약 10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발해의 성터가 남아있는 이곳은 청나라 때 雙城子라고 불렀고, 송나라에서는 황제가 구금되었던 곳이라 하여 宋皇嶺 또는 宋王嶺으로 불렸다. 1866년에 마을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많은 한인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이 이뤄진 곳으로, 보재 이상설이 서거한 지역이기도 하다. (송기호, 『발해를 찾아서: 만주, 연해주 답사기』, 술출판사, 1993, 161~164쪽)

29) 위의 책, 197쪽. “留五日, 得主人紹介乘車, 至宋皇嶺. 韓人家留四日, 雇俄人馬車暮至俄村農家, 而宿無溫突無被. 盖環卧于烟筒傍乾草裡, 故朝起草屑滿頭, 朝夕無飯, 只喫黑麵包甘薯湯數種, 恰似猪牧場, 可知其蠻俗也.”

를 가 청국의 변경에 도착하여 차에 내린 뒤 걸어서 밀산부에 도착했다. 快常別里에서 점심을 때우고 호수를 따라 동쪽 7리를 가면 곧 우리가 새로 개척한 韓興洞이었다. 韓基煜(1867~1922)³⁰⁾의 집을 물어 도착하여 가군에게 엎드려 절 올릴 수 있었다. 膝前을 떠난 지 3년에 안색과 髭髮이 예전과 다르졌고 거적문과 풀로 만든 자리에 의관은 남루하시니 기쁨과 송구함이 극도로 교차하여 서글픈 눈물을 쏟는 것조차 알 수 없었다.”³¹⁾

이렇게 해후한 부자였기에 반가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지만 이승희는 그의 아버지이자 스승이었으며 공동체의 지도자였다. 즉 이기인에게는 한흥동의 지도자 이승희를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면서 때로는 많은 일을 직접 주선하고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자동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 감정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이에 이승희는 이기원에게 ‘주체적인 민족적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요구하며 즉각 독서에 임할 것을 지시한다.³²⁾

30) 즉 韓基煜을 말한다. 그는 함경북도 慶源 출생으로 본관은 청주, 자는 景化, 호는 湖亭이다. 16세 때 煙湫로 이주, 1906년 간도 龍井村 瑞甸義塾의 塾監을 맡았다. 1908년에는 러시아 연추에서 鮮興義塾의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고, 1912년 대종교를 신봉하여 복만의 施教員을 자칭하며 길림성 밀산으로 이주하여 교육과 전교활동을 진행했다. 1922년 토비의 습격 때 마을 사람을 보호하다 희생당했다. 2009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31) 「蜜山追憶記」, 197쪽, “翌至江原而宿, 前有與凱湖周圍可千有餘里, 清俄分占爲界. 漁業頗繁, 行五十里到清國境, 下車步行, 至密山府. 快常別里午饒, 沿湖東行七里, 卽我新開拓韓興洞也. 詢到韓基煜家, 拜伏于家君, 膝前三年違, 顏髭髮異昔, 席門草座, 衣冠襤褸, 喜懼交極, 不覺涼淚之.”

32) 이승희는 이기원에게 “너의 용도와 인사를 보니 모호하고 명정하지 못한데 어찌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겠느냐?”라며 곧장 독서를 시작할 것을 명한다. 특히 그가 중요시 한 것은 ‘역사’였다. 그는 먼저 『中華二十四代史』를 빌려 읽으라 명하는 동시에 “유년에는 ‘三國史’나 ‘疆域考’ 등 우리나라 역사 지리서를 필히 읽어야 비로소 우리 민족이 극동을 웅패하여 항상 한족을 뛰어 넘었고 문명으로써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도리어 ‘소중화’라 업신여기는 청함을 당하니 죽어도 한이 될 것이다.”라며 강한 민족적 정체성과 주체적인 역사의식을 강조하였다. (위의 책, 197쪽, “察汝容貌言辭, 含糊不明, 安得與人交際乎? 盖以余尚家駿, 多有兒時之畏懼, 不敢說話. 故也端川人崔竹亭丈與家君相厚, 借其所藏『中華二十四代史』, 而命之日: 讀踰月而畢一日招. (…中略…) 幼年必讀三國史疆域考等我國歷史地理書, 始覺我

이렇게 그는 이승희의 지근거리에서 직접 그를 보좌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을 것이다. 회고에 따르면 한흥동에서 이승희는 유인석과 이상설 그리고 도산 안창호와 더불어 성리설을 포함한 한흥동 운영과 나라의 진로에 관한 중요한 논의들을 이어갔다.³³⁾ 하지만 자신을 찾아온 靜山 裴文祖(1865~1928)³⁴⁾에게 토로한 것처럼, 한흥동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 ‘자본이 메달라 전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자금 지원의 큰 축이었던 권업회의 내분이 지속되고 있었고 1913년 이상설이 밀정으로 몰려 추방당하면서 그 동력을 지속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적인 문제로 인해 국내와 재중 유림들과의 교류와 연계 또한 쉽지 않았다. 결국 1913년 여름 그는 그곳의 경영권을 이양하며 안동현으로 옮기게 되고 이기인도 다시 그를 배종했다.³⁵⁾ 그렇게 그의 「蜜山追憶記」는 종료된다.³⁶⁾

그의 회고에서 첫 번째로 주목되는 지점은 유인석과 이승희의 관계다. 기호학과 계열로 華西學을 계승한 유인석은 항일의병유림의 상징적 존재로, 그는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의 木花村(현재 포시에트 일대)에 머물

族雄霸極東，常跨漢族，而以文學之不及，還被小中華之侮稱，殊可恨也。”)

33) 「蜜山追憶記」, 198쪽. “見與柳毅庵麟錫李溥齋相高講論性理之說，許以吾家主理之學。(…中略…) 安島山昌浩新自美洲還訪韓興洞，商議前進之策。(…中略…) 裴請山文昶慕我家君，萬里專訪於韓興洞，留討數日，而恨家君所營韓興之事，資乏不能前進，歎息而還。”

34) 咸安 漆原 출생으로 본관은 경주, 자는性和 호는 靜山이었다가 定山으로 개호했으며 문집으로는 『定山集』이 전한다. 인근의 希齋 安鍾彰(1865~1918) · 一軒 趙昇澤(1855~1914) · 西川 趙貞奎(1853~1920), 창원의 勿窩 金相瑬(1857~1936) 등과 교유했다. 1905년 국난이 발생하자 조병택과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건너가 유인석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후 동지들과 결합하여 자금을 모은 그는 신해(1911)년 다시금 바다를 건너 해삼위로 가서 이상설을 만났고 이후 이승희를 찾아가 이주 시기를 논하고 돌아왔다. 이후 의령 국사봉 아래 丹邱池에 築室한 뒤 학문에 전념했다. (安鍾和, 「行狀」, 『定山集』卷4)

35) 「蜜山追憶記」, 199쪽. “癸丑(1913)夏，持李溥齋金也忍書，更來數日商確，渡其地券，付託振興方策，束裝而發南滿之行。”

36) 물론, 이 책은 회고록의 특성상 모든 것이 ‘사실’과 부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그 회고를 통해 사료들이 담아내지 못한 것을 유출할 수 있고 사실 이면의 정황들은 충분히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고가 그의 회고록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렀다. 그곳에서 사후 2년 전에 완성한, 만년의 역작으로 평가받는 『宇宙問答』을 집필하며 유도의 회복과 ‘동양삼국연대’를 구상하고 있었다.³⁷⁾ 이 둘은 이 일대 대표적인 유림계의 거목으로서 틈틈이 교분을 쌓았는데 1914년 이승희가 북경에서 공교회의 승인을 득할 때도 그에게 지도를 청하며 협조와 연대를 당부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갔다.³⁸⁾ 하지만 아래의 회고는 두 사람의 서구 인식에 관한 작은 온도차를 유추하게 만든다.

“가군을 모시고 木花室 落介의 유인석 우소를 찾아가 국사를 토론하고 학문을 講研했다. 의암이 웃으시며 “근자에 紅毛夷의 지전설이 있던데 지구가 만약 돌면 곧 집은 깨지고 사람은 넘어질 텐데 어찌 그리도 우둔한지요.”라고 했다. 가군도 웃으시며 “지구는 스스로 인력을 갖고 있기에 이런 우환은 없을지니 그 설을 가볍게 폄훼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의암은 慙然하시며 “강옹 또한 그 설에 미혹된 것이오?”라며 怪駭한 표정을 선명히 드러내시니 슬그머니 웃고 돌아왔다.³⁹⁾

‘지전설’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입장이 서로 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서구의 제도나 사상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기인의 기억 속에 재구된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부친에 비해 서구의 이론이나 근대화에 대한 유인석의 입장이 다소 경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의 기억에서는 유인석이 보다 원칙적인 입장이었고 이기인은 불금하며 웃어넘기는 자신을 통해 이승희의 감정을 대변하고 있다. 즉 이 둘은 모두 고국을 떠나 이역에 머물며 나라의 독립과

37) 이에회, 「의암 유인석의 연해주에서의 의병투쟁과 사상적 변이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69, 동양철학연구회, 2012, 157쪽.

38) 서동일, 「일제 초기 동삼성한인공교회의 설립과 활동」, 『역사와 현실』99, 한국역사연구회, 2016, 253쪽.

39) 「蜜山追憶記」, 199쪽, “侍家君, 往木花室落介柳毅庵寓所, 討論國事講研學文, 毅庵笑呼家君曰: 近聞紅毛夷, 有地轉之說, 地若轉則屋破人倒矣, 何其愚也. 家君笑曰: 地球自有引力, 無此患也, 不可輕駁其說也. 毅庵慙然曰: 剛翁亦惑其說乎? 顯有怪駭之色, 窃笑而歸.”

유도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둘의 관점에는 일치하지 않는 지점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이는 율곡을 계승한 화서학과와 퇴계를 계승한 한주학과 사이의 미묘한 철학적 입장차도 연결된다.⁴⁰⁾ 비록 유학의 회복이라는 전제에는 일치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선대로부터 이어진 철학적 입장까지 동일할 수 없었음을 이승희 또한 확인하게 된 것이다.⁴¹⁾

두 번째로 주목되는 지점은 당시 한인 사회에 내재된 긴장 국면에 관한 서술이다. 당시 해삼위 한인단체의 중심은 新韓村에 조직된 재러 독립운동단체였던 勸業會였고 핵심인사는 이승희와 한홍동을 구상·실행·전개했던 이상설이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권업회의 내분이 대단히 심화되어 ‘서로를 구분’하고 있었고, 이는 이상설 개인뿐만 아니라 한홍동의 경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⁴²⁾ 특히 권업회 주요 인사들의 지연을 중심으로 발생한 내분과 피살사건 그리고 이상설의 체포 소식을 전해들은 이기인의 우려 가득한 발언은 당시 이승희가 느꼈을 좌절과 회한을 추측하게 만든다.⁴³⁾

40) 사실 이 둘은 19세기 퇴계학과와 율곡학과를 대표하는 한주학과와 화서학과를 계승한 인물인데, 이 두 학파는 서로의 유학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중국적인 유학적 입장에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기인의 언급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안유경, 「한주 이진상과 화서 이항로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 『영남학』6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7, 229~261쪽.)

41) 이 일화는 또한 유인석과의 개인적인 친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례다. 다만 해삼위에 머물던 시기 이승희는 유인석을 찾아가 서로 방략을 토의하며 “올바르신 우리 의암 선생, 백번 넘어졌어도 의와 더불어 계시도다.”라는 증시를 남기며 우의를 드러냈고 이후 1914년 북경 방문 당시에도 그의 문인 金起漢과 접선하여 지속적인 의견을 교환한 지우였다. 다시 말하면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했음에도 이승희는 유인석에 대한 예우와 교유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다. (『韓溪遺稿』1, 「贈柳毅庵汝聖」, 123쪽, “題我毅庵子, 百顯義與存.”, 『韓溪遺稿』1, 「教育部長, 不理孔教教科, 有感」, 147쪽, “余以將往曲阜辭謝, 金起漢適携華西雅言至.”)

42) 당시 일제는 권업회를 세 파벌로 규정하였고 그 중심인물로 이상설(경성파), 車錫甫(서(평안도)파), 崔才亨(북(함경도)파)을 지목한 바 있다. (박결순, 「연해주 한인사회의 갈등과 정순만의 피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3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60쪽)

회고록은 출신 세력별 갈등과 함께 종교 이념과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긴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북간도 墾民會에도 기독교 계열의 유신파와 보수 유림간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는데⁴⁴⁾, 아래의 회고는 위와 같은 심각한 대립은 아니지만 이승희와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역시 결코 타협하기 어려운 이념적·종교적 입장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일 후 마차를 구비하라 명하시어 江北 金聖武⁴⁵⁾의 집으로 가셨는데 이는 안창호와의 약속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성무의 부친은 야소교를 독실하게 믿었는데 우리 가군에게도 이 종교를 믿으라 권유하며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돌아오니 심히 어려운 노고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우리 가군께서는 “나는 곧 하늘을 경배하지 않은 적이 없거늘, 어찌 1주일에 한 번을 기다렸다 하늘을 경배한단 말이요.”라고 했다.⁴⁶⁾

사실상 신민회나 국민회 계열의 기독교계 인사의 지원으로 한흥동이 운영되고 있었기에 이들 구성원의 협조와 연대는 대단히 중차대한 일이었다. 이기인 스스로 미주의 한인들이 농장 경영을 위해 50,000불을 지원했다고 회고하는 것처럼,⁴⁷⁾ 미국에서 건너온 지도 인사들은 이승희에

43) “듣건대 해삼위의 한인 중에는 기호와 서북지방이 서로의 일을 구별하려는 조짐이 있었는데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인 일마저 있었다고 한다. 이보재는 기호파의 영수로 불리어져 러시아 관원에 붙잡혀 갇혔는데 달이 넘도록 그 月餉이 끊겼다고 한다.”(『蜜山追憶記』, 198쪽, “聞海參威韓人, 有畿湖西北地方, 別相事之端, 而有拳銃殺人之事. 李溥齋謂畿湖派領首, 俄官拘囚, 踰月停其月餉.”)

44) 김춘선, 「중화민국 초 재중 한인사회의 갈등과 통합」, 『한중미래연구』3, 동덕여자대학교 한중미래연구소, 2014, 18쪽.

45) 생몰년 미상. 1905년 안창호가 초대 회장이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共立協會(후일 국민회) 주요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후 이상설의 주도로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되었고 다시 밀산으로 이주했다. (임경석, 「권업회 설립 전후 재노령 한인 정체세력과 안창호」, 『도산학연구』5, 도산학회, 1998, 99쪽.)

46) 「蜜山追憶記」, 198쪽, “數日後, 命具馬車, 往江北金聖武, 蓋踐安島山之約也. 聖武之父, 篤信耶穌教, 勸我家君信教曰: 一週日一回禮拜, 無甚難之行勞. 家君笑曰: 余則無時不敬天矣, 何待一週一回敬天乎?”

47) 위와 같음, “後聞美洲韓人所送金五萬弗”

계도 대단히 중요했던 인물이었고 또 독립운동의 동지였다. 하지만 상술한 것처럼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기독교를 독실하게 신봉하는 인물들이었고, 이승희는 한국을 ‘我東’이 아닌 “我華”⁴⁸⁾라고 할 만큼 유교를 철저히 내면화하고 있었기에 위와 같은 일화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공교교과론」에서 피력한 것처럼 그는 서구의 것을 참조한 뒤 이를 유교 문명에 접목하여 ‘舊粹’⁴⁹⁾를 회복하려 했던 바, 당시 한인 기독교인의 모습은 서구의 것을 ‘주’로 삼고 있었기에 이승희의 입장과는 상충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유교의 대의에 충실한 그의 원칙주의적 입장을 매우 잘 드러내면서도, 한인 기독교인들과는 거리감을 보이며 일정 정도 선을 긋는 ‘확장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는 동 시기 만주에 있던 석주 이상룡의 입장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⁵⁰⁾

권업회의 갈등과 이상설 신변의 문제 그리고 자금지원의 부족과 상술한 이념적 문제 등으로 인해 이승희는 한흥동 경영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 또한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종교의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던 상황에서 정통 유림이었던 그의 입지나 영향력은 점차 좁아지고 있었다.⁵¹⁾ 이에 그는 대종교인 白純 金玄 등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고 安東縣으로 이주하게 된다.⁵²⁾ 이후 그는 이곳에서 “공교운동”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수립 및 이행하기에 이른다.⁵³⁾

48) 『韓溪遺稿』1, 「西遊錄・北京」, 137쪽, “滿洲洋館車外走, 我華誰是主人翁”

49) 『韓溪遺稿』6, 「金子順貫筆話」, “稍稍教之以吾邦之舊粹.”

50) 석주는 유교를 절대화하고 기독교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로 인식하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동일, 앞의 논문, 259쪽)

51) 실제로 이즈음인 1912년 8월 12일(음력) 이상설이 대종교를 신봉하던 상해의 신규식과 함께 길림성 和龍 대종교의 교당을 찾아와 교세의 확장에 관해 의논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후 1914년 대종교 교구 설정을 단행할 때 이상설은 북도본사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김동환, 「일제강점기 대종교와 기독교의 연계활동에 대한 담론」, 『국학연구』21, 국학연구소, 2017, 150~151쪽)

52) 李基元, 『韓溪遺稿』9, 「痛慕錄」 521쪽, “大宗教人白純金玄等來言, 出資繼續韓興事業, 願讓渡經營權.”

53) 그곳에는 고국의 동지들 즉 용인 출신의 기호학과 거유로 1910년 만주로 건너온 東田 孟輔淳 1862~1933) 등의 유림들이 다수 집결해 있었다. 또 그곳에는 한인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운동 세력을 비밀 지원하는 상점이자 객잔 “誠信泰”와

IV. 결론

「蜜山追憶記」는 1910년 7월, 강제 병합을 앞둔 한국을 떠나 부친이 머물고 있던 이역 밀산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약 3년을 보내고 안동현으로 떠날 때까지의 기억을 담고 있다. 즉 국가와 유도의 “생존”을 도모하고자 도해하여 고군분투하던 부친을 찾아가는 것에서 이 작품은 출발한다. 그리고 수많은 곡절과 난관을 거쳐 도착한 한흥동에서 진행된 독립운동기지 및 한인공동체 구축 사업이 결국 좌절되며 안동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중·러 국경지대에 위치한 밀산 도착 당시 10대 청년이었던 그는 특별한 외부 활동 없이, 부친의 사업을 보조하며 당시 한흥동 사업을 물밑에서 지원했다. 또 본고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1914년 이승희가 직접 북경 공교회회를 찾아가 동삼성한인공교회 지회 승인을 얻을 때도 그 역시 함께하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허리’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부친 사후에도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임시정부 및 대한독립의용단 그리고 이상룡·신백우 등과 연락하며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부친을 만나기 위해 밀산으로 향했던 그는, 이승희 사후에는 그 경험을 기반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간 것이다.

그의 회고는 그의 생애 첫 해외 체험의 기억을 담고 있는 비교적 짧은 2035자의 한문 회고록으로 정확히 언제 작성되었는지 불명이다.⁵⁴⁾ 또한 ‘회고록’이라는 장르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억에 의존한 이 책의 내용을 모두 사실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의 회고는 이미 공개된 다양한 자료들이 미처 조명하지 못했던 지점을 추론하게 만들고

같은 거점이 있었다. (서동일, 「1910년대 중국 안동 성신태 상점 설립과 독립운동 지원」, 『사림』56, 수선사학회, 2016, 165쪽) 이승희에게 그곳은 지리적인 이점과 함께 개인의 활동이 아닌 유림의 집단적 움직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였다.

54) 이는 중국과 한국을 넘나들며 부친을 돕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독립지사와 연락을 담당하며 독립운동에 일조했던 그의 입장에서, 중요한 인물·정보·사안이 적힌 문서를 보관하거나 창작하는 일들이 일제강점기에는 불가능했기에 회고의 형태로 남긴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을 실감나게 기술하여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또한 한문글쓰기를 통해 『韓溪遺稿』의 기록과 기록 사이의 공백을 대단히 잘 메워내며 밀산의 상황과 분위기를 생생히 전해주고 있기에 여타의 근대기 한문회고록 및 관련자료 발굴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독립운동가의 아내나 며느리로 알려진 여성들의 회고록이 시사하는 것처럼,⁵⁵⁾ 국내외를 오가며 묵묵히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독립운동가 2세들의 인고와 고초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요긴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한홍동 경영에 있어서 이승희 측이 부딪히고 있었던 장애의 일면을 생동감 있게 담고 있다.

한주학파의 학문을 계승하고 동시에 연해주 일대 독립운동의 중심에서 있던 부친의 활약에 비하면 그의 활동은 비교적 작은 것이었다. 부친에게 전해 줄 의복을 담고 있는 행량을 꼭 붙잡은 채 한홍동에 도착한 만 16세의 어린 청년이었던 그는 주로 이승희의 개인과 관련된 일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체 역시 중요한 한국독립운동과 관련된 일부분이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한 지점이다. 본고는 이기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중하다 보니 그의 장형 李基元 관련 기록들을 비교 언급하지 못했다. 또한 이기인과 유사한 독립운동가 자제 및 가족들뿐만 아니라 제자 및 동료들의 한홍동 관련 (한문) 기록들 역시 비교 고찰하지 못했다. 차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필자의 과제이다.

※ 이 논문은 2021년 1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3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55) 대표적인 여성 회고록으로는 이회영의 아내 李恩淑(1889~1979)의 『서간도시종기』(1966)나 석주 이상룡의 손자 며느리 許銀(1909~1997)의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2010), 金禮鎭(1898~1950) 목사의 부인 韓道信(1895~1986)의 『꿈 깃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1996)를 거론할 수 있다.

참고문헌

李基元, 『白溪文集』, 白溪文集刊行所, 1986.

李承熙, 『韓溪遺稿』1~9, 國史編纂委員會, 1976~1982.

김광택(주편), 『밀산조선족백년사』, 밀산조선족백년사편찬위, 흑룡강성조선민족출판사, 2007, 5~8쪽.

김동환, 「일제강점기 대종교와 기독교의 연계활동에 대한 담론」, 『국학연구』21, 국학연구소, 2017, 150~151쪽.

김승룡, 「枕山 李洙仁의 삶과 시세계에 대하여」, 『영남학』7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50~52쪽.

김춘선, 「중화민국 초 재중 한인사회의 갈등과 통합」, 『한중미래연구』3, 동덕여자대학교 한중미래연구소, 2014, 18쪽.

김태국, 「신흥무관학교와 서간도 한인사회의 지원과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4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1, 42쪽.

박걸순, 「연해주 한인사회의 갈등과 정순만의 피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3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60쪽.

박민영(외), 『기록으로 보는 재외한인의 역사 : 이주와 정착 그리고 발전의 시간들 아시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2016, 66쪽.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2008, 570쪽.

반병률, 「러시아 연해주 한인마을 연추의 형성과 초기 모습」, 『동북아역사논총』25, 동북아역사재단, 2009, 40쪽.

서동일, 「일제 초기 동삼성한인공교회의 설립과 활동」, 『역사와 현실』99, 한국역사연구회, 2016, 253쪽.

——, 「1910년대 중국 안동 성신태 상점 설립과 독립운동 지원」, 『사림』56, 수선사학회, 2016, 165쪽.

송기호, 『발해를 찾아서: 만주, 연해주 답사기』, 솔출판사, 1993, 161~164쪽.

안유경, 「한주 이진상과 화서 이항로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 『영남학』6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7, 229~261쪽.

- 양정훈, 「해외 독립운동 거점지역과 고려인 학교 연계 연구」, 『한국보훈논총』 18-2, 한국보훈학회, 2019, 72쪽.
- 유준기, 「독립운동기지 한흥동 건설과 독립운동가의 망명 경로」, 『한국민족운동사 연구』4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13쪽.
- 이상근, 「한인 노령 이주사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24~25쪽.
- 이상일, 「한인 노령이주와 제정러시아의 대한인 정책」, 『태동고전연구』1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7, 24쪽.
- 이상해, 「옛 소련 지역의 고려인 주거」, 『국제학술대회논문집』, 한국주거학회, 2005, 144쪽.
- 이성현, 「민영환의 ‘순국’ 담론에 대한 고찰」, 『강원사학』26, 강원사학회, 2004, 126쪽.
- 이애희, 「의암 유인석의 연해주에서의 의병투쟁과 사상적 변이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69, 동양철학연구회, 2012, 157쪽.
- 임경석, 「권업회 설립 전후 재노령 한인 정체세력과 안창호」, 『도산학연구』5, 도산학회, 1998, 99쪽.
- 정우라, 「『遼左紀行』을 통해 본 張錫英의 만주체험과 그 의의」, 『한국학논집』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7, 292쪽.

Abstract

A Study on the 「Memoirs of Millsan(蜜山追憶記)」
Written by Baekgye Lee, Gi-in

Han, Gil-ro

This paper analyzes the 「Memoirs of Millsan」 Written by Baekgye Lee, Gi-in (1894-1981), the second son of Lee Seung-hee. In 1910, he went to Vladivostok from Busan to see his father. He then moved to Milsan, North Manchuria, where he eventually met his father. In 1913, the last story was about moving from Milsan to Andong due to economic problems. In this paper, I analyzes the Lee Gi-in's memoir. In particular, This paper is focused on his experience in traveling and how he remembered the situation in Milsan. First, The book also details the route from Busan to Vladivostok and the route to Millsan. And In particular, they explain what they experienced and how they solved many problems. At the same time, it includes a phase of division and conflict in the Korean community living in Maritime Province(沿海州). In particular, His book shows the lives and activities of the descendants of independent activists. Through this work, I expect new discoveries and in-depth interpretations of similar text.

keywords :

Lee, Gi-in(李基仁), 「Memoirs of Millsan (蜜山追憶記)」,
Hanhengdong(韓興洞), Lee,Seung-Hee(李承熙), 『Hangyeyugo(韓溪遺稿)」,